

2015 새 설계

“계급장 떼고 누구든지 만나겠다”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주민·공무원과 언제든 대화
 참여·소통...희망·행복 핵심
 외부 전문가 구민감사관제
 상록도서관, 문화마당 활용
 풍암동 라이브카페 거리로

임우진 광주시 서구청장은 “민선 6기 구정 목표인 ‘함께하는 주민 자치, 살맛나는 으뜸 서구’를 만들기 위해 960여명 서구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31만 서구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계급과 상관없이 언제든, 누구든 만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임 구청장은 올 한해 구정의 핵심 가치를 ‘참여와 소통’, ‘희망과 행복’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핵심 전략별 주요 사업을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임 구청장은 ‘성숙하고 새로운 자치시대’를 예고했다.

임 구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자 선거개입과 줄서기를 엄단해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주민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행정 구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구정평가단’과 ‘구민감사관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해 구정 주요정책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일하는 전문가·서비스 집단’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 공직자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를 구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민 감사관제와 청렴성에 대한 상시 확인시스템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투명성, 청렴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모바일 및 유선 전화를 통한 상시 설문조사도 벌이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역량교육과 함께 학습동아리도 진행한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체의 자치·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모은다.

동 주민센터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끝으로 문화, 환경, 경제, 안전 부문에 힘을 쏟아 ‘우름 서구’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록도서관을 주민 문화마당과 인문학 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풍암동에는 라이브 카페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심 속 생태 호수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운천·풍암 호수공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학부모가 어린 자녀를 믿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 구청장은 “올해는 민선 6기가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본격 출항하는 첫해로서 그간 다져놓은 저력을 바탕으로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그린벨트 해제 혁신도시 연계 발전”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친환경 융·복합산업 조성
 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
 로컬푸드 직판장 개설
 문화인물 기념사업 추진
 희망주택·이주여성 정착 지원

“남구가 갖고 있는 문화 자산을 키우고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20일 “민선 6기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15년, 남구의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 맞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최 구청장은 올 한 해도 주요 현안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결정행정시스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구청장실,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주민과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구민광장위원회, 주민배심원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 구청장은 특히 특색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내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사업도 전개한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해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중심 농산물 유통체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최 구청장은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남구만의 새로운 복지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복지자원을 발굴·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고 희망주택 보급사업을 확대해 저소득층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 확충, 이주여성의 지역 정착 지원에도 나선다.

문화도시를 주창하는 남구답게 정음성 선생 음악관, 김현경 시인 문학관, 이강하 화백 미술관 건립 등 양립 문화인물 기념사업도 추진에 들어간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인접지역인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혁신도시와 연계한 친환경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최 구청장은 “남구는 특히 행정구역 면적의 64.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개발 가능한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한 뒤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올 한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월봉서원’ 세대초월 인기

백옥연 역사문화전문위원 “권위 벗고 연령대별 콘텐츠 주효”

광주 ‘월봉서원’에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 문화 유산을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계층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별화된 체험 행사는 별도의 문화네트워크까지 형성, 서원 활성화에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월봉서원’이 일반인들로부터 이 같은 깊은 관심을 갖기까지는 광산구 백옥연(47)역사문화전문위원의 역할이 한몫을 했다.

백 위원은 “권위적이었던 서원의 기능을 현대적인 콘텐츠를 통해 편안한 장소로 바꿔간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월봉서원’의 경우 세대별로 차별화된 각종 체험행사가 눈에 띈다.

이중 ‘선비의 하루’라는 체험프로그램은 고봉 기대승 선생을 기리는 방법으로

편지나 족자형태로 자기 이야기를 쓰며 삶을 돌아본다.

또한 ‘꼬마철학자 상상학교’는 철학이 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성리학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 아카데미’프로그램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조선 성리학까지를 정리하는 ‘전문강좌’를 통해 종교와 철학적 관점에서 쉽게 유교를 풀어내고 있다.

특히 ‘월봉서원’에서 고봉 묘소까지 1.5km에 이르는 거리는 ‘철학자의 길’로,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봉문화제’와 ‘고봉학술대회’ 등은 2회째 성황리에 개최돼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월봉서원과 인근 영산강 주변 문화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월봉서원’은 전국 900여 곳의 향교와 서원 가운데 가장 활성화 된 서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월봉서원은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활용사업 평가 결과, 우수 서원으로 평가받아 포상을 받았다.

지난해 2850명이 월봉서원에서 열린 12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2만여명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월봉서원을 다녀갔다.

이 같은 성과로 월봉서원은 최근 문화재청의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선정된 38곳 가운데 우수사업을 펼친 서원으로 평가를 받아 최근 포상까지 받았다. 문화재청은 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 인문학과 결합시켜, 체험,공연,답사 위주의 콘텐츠를 갖춘 월봉서원의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백옥연 광주 광산구 역사문화전문위원은 “월봉서원의 향교, 서원 활용사업은 올해도 계속된다”며 “연말까지 ‘월봉서원, 삶 속에 잔물치다’를 주제로 9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민선 6기 광주시 사회복지 5대 전략은

시민존중·친화·생애주기·일자리·안전

민선6기 4년동안 시행하게 될 광주시의 사회복지 밑그림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 민선6기 지역사회의 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3기(2015~2018년) 광주지역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광주발전연구원 김기곤 박사가 보고한 ‘제3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에는 ▲시민존중의 광주형 복지 권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 ▲시민친화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5대 전략을 담았다.

또 이의 달성을 위해 ▲복지기준선 마련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출산 및 양육 지원 ▲활력있는 노년 삶 ▲저소득 근로자 생활임금 ▲5대 사회보장 권

리성 강화 ▲자살·폭력·학대 방지 및 구제 ▲민관복지거버넌스 ▲이웃과 복지마을 만들기 등 15개 핵심과제와 핵심과제별 총 45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이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시의 복지비전인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에 4년간 5904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3기 광주지역사회복지 계획’은 민선 6기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단위 통합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로 시행된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시와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을 토대로 지난 9개월간 진행된 학술연구 용역의 최종 마무리 성격으로, 민선6기 광주복지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大山프리모기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생,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아티스트,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우지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444명 810 58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